

도내 국제결혼 감소세... 작년 772건

전년 대비 4.2%포인트, 34건 줄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8.4%로 전국 최고

도내에서 국제결혼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772건의 다문화 혼인이 이뤄졌다.

다문화 혼인이란 한국 남성-외국 여성, 한국 여성-외국 남성 등의 결혼을

말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 4.2%포인트, 34건이 줄어든 수치다.

도내 다문화 혼인은 2008년 1,512건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09년 1,257건, 2010년 1,309건, 2011년 1,129건, 2012년 1,093건, 2013년 952건, 2014년 806건이다.

그럼에도 전북지역 전체 혼인 중 다

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복이 8.4%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제주 8.2%, 전남 8.1%의 순을 보였다.

전북도의 다문화 이혼율은 지난 2008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 이혼은 442건으로 전년보다 72건 줄었다.

2008년 444건, 2009년 457건, 2010년 525건, 2011년 552건, 2012년 501건, 2013년 545건, 2014년 514건이다.

다문화 혼인이 줄면서 출생아 역시 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880명으로 2014년에 비해 9.8%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가 1.0% 줄어든 수치보다 더욱 큰 폭이다. /고민형 기자

외교 당국자 '전대주 적법' 박노완 '베트남통' 의혹 부인

외교부는 16일 베트남 공관장 인사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개입했다는 내부 폭로를 거듭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대주 전(前) 주베트남대사 임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호찌민 총영사관 김재현 영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해명한 것이다.

김 영사는 전 전 대사의 경우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최씨의 언니 최순희씨의 아들 장승호씨의 호찌민 유치원 사업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최씨가 힘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박노완 현(現) 호찌민 총영사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박 총영사는 외시 24기로 베트남에서 2차례 근무하고 현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베트남통"이라며 "그가 호찌민 총영사에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박 총영사는" 빨리 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4월 임명) 당시 또래에 공관장들도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김 영사가 이와 같은 의혹을 폭로한 배경, 폭로 내용의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본부 차원에서 김 영사와 전화로 인터뷰 배경과 경위,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영사를 본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조직에서 소환의 의미는 다른 부처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진다"며 "탄약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면 본부에서 가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 전주시는 16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청원 공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전북현대모터스 이철근 단장을 강사로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철근 단장은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전주시와 지속적인 스킵을 통한 상생 협력사업 발굴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구단 마케팅 등 프로구단 연고지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관련기사 4면>

'전북 촛불집회' 이번 주도 뜨겁게 타오른다

'제2차 도민 시국 촛불집회' 19일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 지역별 집회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추운 겨울바람을 뜨겁게 데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시국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충년제과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 및 하야 거부에 맞서 제2차 전북도민 시국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시국 촛불집회는 본 행사에 앞선 3시 노동자와 농민(시간 미정), 청소년·대학생·청년 3개 그룹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결집해 시국대회 및 시가행진을 벌인 뒤 충경로 사거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자 대회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 농민대회는 전북도청 광장, 청소년·대학생·청년 시국대회는 풍남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지역별 집회도 예정됐다. 군산 18일 오후 6시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익산 14~18일 오후 6시30분 영등동 하나은행 앞(18일 익산시민 집중촛불), 김제 오는 19일까지 오후 5시 30분 김제신협 앞, 정읍 19일 오후 4시 정읍문화회관 앞, 순창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농협중앙회 순창군자부 앞, 진안 18일 오후 6시 진안군청 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전북시국회의는 풍남문 광장

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전주 촛불집회를 집중 촛불집회로 전환해 17일, 23일, 30일 풍남문 광장에서 잇따라 추진한다.

또 26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울집회에 참석해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전북 비상시국회의의 관계자는 "이번 주는 1만명 결집을 목표로 제2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하야 거부에 따라 17일부터는 매일 진행됐던 촛불집회 행사를 집중 촛불 집회로 전환해 강도높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내 학교 독감 환자 267명 발생

114명 완치·153명 치료 중... 중·고에서 많이 발생

전북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부터 이날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총 267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고등학교는 178명, 중학교 73명, 초등학교는 16명 등이다.

267명의 환자 가운데 현재 114명은 완치가 됐고, 153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유행하고 있는 이번 독감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 A형 독감으로 점쳐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체를 수거해 세부적인 바이러스 타입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독감 환자가 잇따르자 도 교육청은 환자 발생 학교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소독 등을 철저하하라고 각 학교에 주문한 상태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독감 환자 수가 발생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이용호, '학교건물 내진보강법' 대표 발의

내진보강기금 신설·내진보강위원회 설립

이용호 의원 (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4일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제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용호 의원

이 법안들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 이용자가 많아 지진에 매우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내진보강 실행과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전국 학교건물 87.5%가 내진시설이 전무하며, 경주 지진 피해학교 중 42% 이상이 아무런 내진시설 없이 지진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을 신설, 유치원, 초·중·고교, 평생교육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교육시설 내진보강위원회' 설립 조항도 포함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우리나라는 내진시설 확보를 비롯한 각종 지진대비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또 다시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 두 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제 학교 내 전체 건물 내진확보 의무화, 민간건물 내진확보, 비구조물 내진 의무화 등 지진 대책에 대한 속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충분한 대비로 지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꾸준히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재호, 김경진, 권은희, 장정숙, 박주현, 소병훈, 김중희, 김삼화, 김두관, 주승용, 김광수, 정인화 의원 총 13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경우 이용호 의원과 김중희, 김두관, 박주현, 소병훈, 주승용, 김광수, 정인화, 장정숙, 김경진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 063-288-9700 www.jjmaeil.com